로컬플러스

군산시 월명동 근대역사지구 '태극기 거리' 조성

군산시 월명동(동장 이건표)은 주민센터 인근 테마가로와 근대역사문화지구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다.

태극기 거리는 군산야행(夜行)이 진행되었던 등불거리를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근대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광복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은 이성당, 한일옥, 세광교회 등 근대역사지구 내 상가 및 기업들로부터 300여기의 태극기를 협찬 받아 진행됐다.

태극기 거리 조성에 앞장선 주민들은 "월명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태극기 물결을 선사하고 근대역사문화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원 간담회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경감 김용대)는 최근 중앙, 남중, 모현·송학 자율방범대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범대원들을 격려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범죄 취약지역을 주로 도보 순찰하는 방범대원들의 안전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보급된 여름용 방범조끼, 랜턴, 불봉 등을 전달하고, 4대 사회악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여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시로 지역·시설에 대한 현장진단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중앙지구대 김용대 대장은 "연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안전을 위해 지속적 예방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와 한정된 경찰력에 큰 도움이 되어 관내 범죄예방 기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농기센터, 쌀 이용 제과제빵 교육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농촌체험·교육농장 관계자 및 농업인 등 24명을 대상으로 쌀 이용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역대 최저치인 62.9kg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식문화가 바뀌고 있어 그 자리를 밀가루가 주원료인 빵과 인스턴드 식품이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식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8월 12일부터 9월2일까지 7회에 걸쳐 밀가루가 아닌 쌀을 이용한 피칸구이, 파운드케익 등 제과제빵교육을 실시해 쌀 소비 촉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체험장과 가공사업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며 "체험객들에게 우리 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작은도서관 시민들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도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한다.

관내 작은도서관 9개소에서는 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도형과 창의, 동화요리, 종이접기, 클레이, 중국어, 역사, 논술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중국어회화, 리빙퀼트, 예쁜글씨배우기 POP, 우쿨렐레 등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각 강좌별 정원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군산 시민은 작은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군산=문정곤기자

비투지코리아 익산 제4산단 입주

방사선 영상기기 국산화 전초기지 역할 기대… 2019년까지 70명 고용 예정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16일 기술선도형 강소기업인 ㈜비투지코리아(대표 신정훈)와 익산 제4일반산단 1만 3,362㎡에 대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비투지코리아는 방사선 X-ray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 2009년 창업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로 듀얼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특히 방사선 센서의 원천기술이라 할 수 있는 CdTe 소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익산시 방사선 영상기기 국산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투자는 그 동안 주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오던 ㈜비투지코리아가 의료기기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직접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결정되었으며, 2019년까지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70여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투지코리아는 지난 2013년 투자의향을 보인 이후 회사 내부사정과 투자 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익산 투자를 망설여 왔다. 그러나 ㈜비투지코리아와 스마트 융합기술센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투자 인센티브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익산시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구애로 최종 투자를 확정했다.

앞으로도 익산시는 타 시군 비교 불리한 투자유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경, 30일까지 수상레저기구 특별점검

음주·무면허·무등록 레저사업 영업·보험 미가입 등

해경이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바다와 호수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위주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레저기구와 기타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수상레저 활동자 또한 증가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저수지, 댐, 호수 등 내수면(內水面)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는 지도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전담인력 부족 등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수면의 경우 해상과 육상(항·포구)에서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며, 내수면의 경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장 점검 및 개인 레저활동자 위법사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내 ▲음주·무면허, 무등록 레저사업 영업 및 레저기구 운항 ▲보험 미가입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등의 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레저 활동지역에 특별단속 현수막을 내걸어 경각심을 높이고, 레저기구 탑승자에게 안전수칙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안전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모두 15건으로 모두 운항자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국제교육자협회 워크숍, 내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서 개최

국내 4년제 대학 75개교 국제교류담당자 158명 참석

한국국제교육자협회(KAI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 Educators) 2016 추계 워크숍이 내일 오전 10시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국내 4년제 대학 75개교 국제교류담당자 158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유학생 유치와 국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국제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교육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분야 업무 능력 고양을 위해 개최된다.

특히 법무부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사증관리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이 이뤄지고, 요즘 새로운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상명대 조항록 국제처장의 실전 사례 중심 발표를 통해 담당자들에게 실무를 경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오후부터는 세션별로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경로 탐색 정보가 발표되고, 국제교류 및 학생 파견 세션에서는 학생교류 파견 관련 제반 실무처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원광대 정수진 국제교류처장은 "원광대 개교 70주년 기념 및 김도종 총장의 유학생 유치 3천명 목표 달성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업무 이해를 높여 협력을 이끌기 위해 이번 행사를 유치했다"며, "워크숍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교육 시장의 방향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보건소, 고령자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관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발생하는 분비물로 전염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질병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며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보건지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460-3244~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한국연예예술인인총연합회 광복절기념

익산시민 위한 대중예술공연 성료

한국연예예술인인총연합회 익산지회는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경 배산체육공원에서 익산시민을 위한 대중예술공연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춘석국회의원, 조배숙국회의원 및 저명인사 등을 포함한 1500여명이상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치러졌다.

이 행사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익산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익산시청과 모현동발전회 및 기타 단체 등의 후원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행사진행은 본 행사진행 주최주관 익산지회장 인사말과 국회의원의 격려사 및 후원자인 인산시청 관계자 등의 축하 인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축하공연에는 초청가수 박진도가 '유리벽사랑'을 비롯해 2곡이상 부르면서 한층 흥을 돋구면서 익산출신가수인 최다희, 김금순, 표시나, 지연지, 정우선, 이소리, 조은정, 강병건, 이영, 최복희, 서수진, 서순전 등의 열띤 공연과 재능을 뽐내면서 방청석의 분위기는 거의 라스베가스의 공연장으로 돌변하면서 한 여름 밤의 고열도 잊은 채 8.15 광복절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익산이 낳은 가수인 최다희는 "'마곡사'노래를 기 발표했고 노래해 호흥이 좋았으며, 향후 2번째 곡인 '아이러브(I LOVE)'노래를 타이틀 곡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CD를 제작 완료했으며 올 10월달 대전에서 신곡인 '아이러브'를 발표회를 갖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금순 가수(다운 부회장)는 특히한 각설히 복장을 하고 품바댄스와 노래를 하는 모습은 관객 및 시민들의 환호를 받는 데 한목을 할 정도로 아주 재주와 재치로 퍼포먼스를 찬란히 시연했다.

그 외에 표시나의 '잊을 수 없어', '멋진 남자' 타이틀곡을 가지고 익산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활동무대를 넓혀가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트로트와 민요까지 다방면으로 소화해내 대중들에게 가창력 있는 가수라고 호평을 받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부터 전국노래자랑과 전국축제 등에서 수 많은 수상을 받았고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심장판막, 정맥류 수술 등을 해서 힘들어하는 친부모 병수발하는 효녀가수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다.

한편, 대중예술공연은 서동축제, 국화축제, 솜리가요제, 청소년가요제 및 8.15광복절 등 연5회 이상 한국연예예술인연합회 주관/주최와 익산시청 및 모현동발전회와 기타 단체 등의 후원으로 행사가 취러지며 시민화합과 소통에 장을 마련하고 대중예술을 접하기 힘든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드림스타트 베이비마사지 교육 인기

군산시 드림스타트에서 진행 중인 '우리아기 오감발달 베이비마사지 교육'이 초보 엄마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일부터 15개월 이하 영아와 모(母)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아이들과 긍정적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엄마와 다문화가정의 엄마에게 아이와의 스킨십을 통해 아이의 유연성과 면역력, 성장을 자극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심리적·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타트는 15개월 이하 영아와 모(母) 16명을 선발하여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8가지 마사지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히고 배워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그동안 아이가 많이 울어서 힘들었는데 목욕 후 마사지를 해주면 울지 않고 잠을 잘 자게 되었다"며 "첫째 아이라 평소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번 베이비마사지 교육을 통해 양육에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교육 소감을 전했다.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은 "베이비마사지를 통해 영아들의 심신안정과 상호교감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이달 말부터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균형있는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방법을 습득토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만점 이유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형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연구용역 본격 추진

익산시가 16일 익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6명의 분야별 연구진이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지난 10일 시작해 올 12월 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적 경제 자원조사를 통해 익산형 사회적경제 순환모델을 구상하고, 시민의식을 진단하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익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함께 내년에 완공될 익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대비, 용역기간동안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미나, 교육, 공청회 등을 함께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제지원센터 운영기본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강조하며, "익산형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연구용역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